

# 남원시, 국가예산 확보 주력 농기계 임대사업소 휴일 운영

지역 매아리

### 신규 국가예산 발굴 1207억원...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시민 편의 증대 등

남원시는 지난 6일 내년도 국가예산을 작년 보다 300억이 증가한 1,207억 원을 목표로 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가 추진하는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문화·관광 분야, 농정 분야, 안전·환경 분야, SOC 사업들로 시민의 삶에 활력, 건강, 행복한 남원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남원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의 시민 편의 증대와 경제 상권을 증진시킬 도시재생 뉴딜(250억원), 광한투원 주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조성(131억), 용남시장 특성화(10억), 공설시장 야시장 활성화(10억)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경제 안정화를 도모한다.

문화·관광 분야는 합과우 지역 옛 다솜 이야기원 조성에 174억을 투입한다.

옛다솜 이야기원이 조성되면 소리체험관, 시립 김병중 미술관, 천문대와

테마파크 등을 벨트화하고 관광단지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남원의 전통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

또한 옛 남원역사 부지에 중앙공원 조성(142억), 남원읍성을 복원(330억)해 시민들의 쉼 공간으로 만든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민활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다.

역사·문화적 자원의 복원과 보존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등을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득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가야문화 복원사업인 유곡리 및 두리리 고분군 정비사업(240억), 환산대첩비지 정비사업(210억), 남원읍성 정비사업 등도 공을 들인다.

이밖에 남원 광한투원 주변 전문가와 구역사 복원사업 등을 통해 남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고 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지리산 산악관광자원을 활용한 발전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290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리산 산악자전거길 인프라 구축(12억),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집라인 설치(50억),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를 조성(72억)한다.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60억), 화장품 벤처빌딩 건립(250억), 산업단지 정비(240억)를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지난해 국비 134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 192억을 확보,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도 꾸준히 이어간다. 아영면과 산동면 기초생활 거점사업(80억), 수지면과 송동면 등 마을단위 자율사업(30억), 서도면 농촌폐자원 활용사업(71억) 등 신규 농촌마을 활성화와 수리시설 개설사업도 추진한다.

/김민근 기자

### 임실군, 6월까지... 일요일 중부사업소만 운영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휴일근무에 돌입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은 농업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4개 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토요일 휴일근무를, 일요일에는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만 운영할 계획이다.

농번기 임대 농기계 사용은 해마다 7~8% 급증하고 있다. 농작업 시기에 농기계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농기계 예약서비스를 이용해 3일전에 예약하면 임대농기계를 배정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8년 전부터 권역별로 4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 농가의 접근성을 쉽게 하여 총 22종 761대의 농기계를 보유,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농작업 기계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작업능률향상과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난 해결에 크게 기여하면서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오고 있다.

특히 임대농기계가 농가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기계인 만큼 작업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농한기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마친 상태다.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바쁠수록 차분하게 작업전 사용요령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최

제7대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의 마지막 회기가 될 제278회 임시회가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오는 16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진남근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4건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한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3,674억 원에서 153억 원이 증액된 3,827억 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문영두 의장은 개회사에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줄 것"과 "주요사업장 방문시 군민이 기대하는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총사업비 5264억원

순창군이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특히 지난 5일 5월 5일 정경영 의실에서 열린 국가예산 추진상황보고회는 4~5월 중앙 부처예산 편성 단계에서 올해 발굴 사업이 부처예산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황숙주 군수가 직접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는 각 실과장 및 핵심사업 계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총 79건 총사업비 5,264억원(국비3,721억원) 규모의 사업들에 대해 추진 상황과 문제점 등이 보고 됐다.

군은 발굴된 모든 사업의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각오로 밀도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집중 논의된 사업은 국도21호선(밤재터널)개량사업과 국지도 55호선(백산~월정간)4차로 확포장 공사다.

국도21호선(밤재터널)은 총사업비 488억 규모의 사업으로 사업의 당위성 설득에 주력하고 국도·국지도개발 5개년계획에 선순위 반영되어 올 해는 꼭 국비 확보에 성공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국지도 55호선(백산~월정

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91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매년 130만명 정도가 찾는 강천산군립공원 교통 체증 및 강천산 휴양단지, 수체함센터 건립 등과 연계해 꼭 필요한 숙원사업으로 도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부처공략에 나서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선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면서 "사업마다 특성을 파악해 세부 전략을 세우고 밀도 있게 국비확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민주당 전상두 지역공동체 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실군수에 출마

더불어민주당 전상두 지역공동체 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일 임실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상두 부위



원장은 임실군 브리핑룸에서 "지속적인 인구유출의 지방 공동화 위기 속에서 새로운 임실을 만들기 위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맞아 보다 창의적이고 소통하는 군수가 필요하다"며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임실에서 임실을 알고, 농민의 마음을 이해하며, 검증된 경영인인 필

요하다"며 임실의 위기를 극복해갈 골든타임에 본인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 후보는 △살고 싶은 임실, 사람이 돌아오는 임실 △군민이 잘사는 임실 △화합하고 소통하는 군정의 3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전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공천 신청을 마쳤다.

/임실=진홍영 기자



## 확 달라진 '춘향시대'

### 불거리·즐거거리·찍을거리 더욱 풍성해져

제88회 춘향제의 대표행사 '춘향시대'가 달라졌다.

지난 6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춘향시대에서 불거리, 즐거거리, 찍을거리가 더욱 풍성해져 춘향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행복한 추억의 장을 선물할 예정이다.

특히 프리포즈 코너에서는 제88회 춘향제 나이와 동갑인 88세 장수커플을 공개 모집해 사랑의 영원을 만끽하는 특별한 프리포즈 이벤트가 펼쳐진다.

모집을 통해 주인공으로 선정된 2팀에게는 남원예촌 1일 숙박권이 선물로 제공되며, 5월 19일 프리포즈 특별무대에서 오랜 세월동안 함께 해준 반려자에게 감사의 마

음을 담아 아가rella 공연과 함께 하는 프리포즈가 진행된다.

지난해 가족단위 관광객 및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지붕 없는 미술관"은 올해 더욱 풍성한 작품이 전시되어 아이들의 동심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영주섬 및 영주각 내에서는 관한투 잉어를 상징화한 도자기 잉어 전시와 해외 및 전국에서 활발한 전시활동을 하고 있는 남원출신 작가 소빈의 다종이 인형 전시가 컬러버로 진행되어 관한투원 구석구석을 한층 풍성한 불거리들로 가득 하다.

/김민근 기자



## 강천산 대대적 시설물 안전점검

순창군이 강천산 대대적 시설물 안전점검과 등산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불관광객 맞이에 들어갔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를 '강천산 불 환경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등산로 목재데크와 철제계단, 현수교 등에 대한 대대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설치한 전열기구 등을 철거하고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등산로 주변 맨발산책로와 계곡 주변 낙엽 및 쓰레기 수거에 집중해 관광객들이 깨끗한 강천에서 힐링 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 겨울철 동안 폐쇄한 숲속 목재데크 탐방로 5개소 2.6km에 대한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본격 개방해 불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봄정경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참가 및 우승, 동계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원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터 지역 원팀,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